

주요기업 명절 앞두고 상생 강화 삼성·현대차·LG, 4조 이상 푼다

삼성그룹 임직원 온라인 장터 운영
현대차그룹 2.2조 납품대금 조기지급
LG그룹 직접 대출 등 금융 지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는 등 상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 대금과 임직원 상여금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덜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요 그룹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2조2562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지원하고, 삼성그룹 1조3000억원, LG그룹 6000억원이 뒤를 잇는다. 세 그룹이 조기 지급하는 금액만 4조1562억원에 달한다.

LG그룹은 LG전자·LG이노텍·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생활건강·LG유플러스·LG CNS·D&O 등 8개 계열사가 협력사 납품대금 약 6000억원을 최대 13일 앞당겨 지급한다. LG는 조기 지급과 함께 LG전자 등 7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와 직접대출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3차 협력사로 상생 범위를 확대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LG그룹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펀드의 10%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에 지원하는 한편 상생 결제 낙수율도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은 13개 관계사가 1조3000억원 규모의 물품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약 7일 앞당겨 지급한다. 지난해 추석보다 지원 규모가 약 1100억원 늘었다. 삼성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도 운영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기아 등 주요 계열사가 6000여개 협력사에 2조2562억원의 납품대금을 최대 23일 조기 지급한다. 지난해 추석 2조228억원, 올해 설 2조768억원보다 확대된 규모다. 1차 협력사에도 2·3차 협력사에 대한 조기 지급을 권고해 상생 효과가 협력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기업들은 취약계층 지원과 전통시장·지역 농가 돕기에도 나선다.

LG그룹 계열사들은 생활용품 전달과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삼성 임직원들은 매년 설과 추석을 합쳐 명절 기간 약 30억원의 물품을 온라인 장터에서 구입하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전통시장 장보기와 지역 농산물 구매, 복지시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명절 상생 활동이 협력사의 단기 자금 부담 완화를 넘어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으로 운기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기아, 'PV7' 공개... 미래 모빌리티 사업 속도

'PV7 카고 롱·패시저 롱' 우선 선배
송호성 사장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기아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대형 전동화 PBV(Platform Beyond Vehicle) 'PV7'을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출시한 중형 PBV 'PV5'에 이어 대형 모델을 추가해 물류·배송부터 승객 운송까지 전동화 상용차 시장에서 고객 고객 선택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기아는 14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에서 PV7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PV7은 기아의 두 번째 전용 전동화 PBV로 ▲사용 목적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공간 ▲동급 최고 수준의 전동화 상품성 ▲차량용 첨단 소프트웨어 ▲플릿 운영 솔루션을 결합한 대형 전동화 PBV 모델이다.

PV7은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넓고 평평한 실내 및 적재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용량 배터리를, 고효율 전기 구동 시스템, 800V 충전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유럽 WLTp 기준 최고 46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와 배터리 충전 상태(SoC) 10%에서 80%까지 20분대 중반의 초급속 충전 성능을 구현한다.

기아는 전장 5.3m급 제원의 'PV7 카고 롱'과 'PV7 패시저 롱'을 우선 선보이며, 차세대 바디 개발·제조 기술인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기반으로 축간거리와 전장·전고 등 제원과 실내 구성을 차별화한 다양한 모델을 유연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PV7은 실용성을 앞세운 공간 설계를 강점으로 하고 있다. 전장 5.35m, 전폭 1.995m, 전고 1.99m, 축거 3.5m의 차체를 바탕으로 카고와 패시저 모델을 운영한다. 카고 롱 모델의 적재 용량은



(위) '더 기아 PV7' 카고 외장, (아래) '더 기아 PV7' 패시저 실내.

/기아

6.1m³로 유로 팔레트 3개를 실을 수 있으며, 낮은 550mm 적재고를 적용해 화물 상하차 편의성을 높였다. 패시저는 7·9·11인승으로 구성해 다양한 운송 수요에 대응한다.

또 기아는 차량 자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까지 결합해 PBV를 '업무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 생성형 AI 에이전트 '글레오 AI', 플릿 관리 시스템 '플레오스 플릿' 등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업무 효율과 차량 운용 경쟁력을 높였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PV7은 개인화된 모빌리티를 향한 여정의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기아는 고객의 다양한 비즈니스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차량, 동급 최고의 전기차 성능 및 PBV 전용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의 생산성과 유연성, 장기적인 보유 가치를 모두 높이는 종합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친환경 선박·FLNG 등 미래기술 '한자리'

조선 3사, 가스택 참가

HD현대, 계열사 5곳 공동 참가
차세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전시
삼성중공업, LNG 밸류체인 기술 전면에
한화오션, 60MW급 FDC 모델 공개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가스택에서 각자의 차세대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친환경 선박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해상데이터센터 등 미래 사업과 기술을 선보인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이날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에너지 전시회 중 하나인 가스택(Gastech) 2026'에 참가한다.

HD현대는 선박의 탈탄소와 운항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조선·에너지 계열사 5곳이 공동 참가해 차세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 설비(FSRU),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 기술 인증과 업무협약(MOU) 등 30건의 공식 행사도 진행한다.

풍력보조추진장치를 적용한 미래형 LNG운반선은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설계 적합성을 인정받는다. 3만5000㎥급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과 18만5000㎥급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시스템 등은 기본 인증을 받는다.

디지털 운항 기술도 내놓는다. LNG운반선의 기관 운항을 최적화하는 인공지능(AI) 솔루션 인증을 받고, 미국선급(A



'윙세일(Wing Sail)'을 설치한 HMM의 5만톤급 중형 유조선(MR탱커) '오리엔탈 아쿠아마린(Oriental Aquamarine)'호.

/HMM

BS)·지멘스와 암모니아 추진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화물창을 기존 4개에서 3개로 줄인 17만7000㎥급 LNG운반선 기술도 소개한다.

삼성중공업은 FLNG를 중심으로 LNG 밸류체인 기술과 사업화를 전면에 내세운다. 독자 개발한 천연가스 액화시스템 'SENSE'를 FLNG 상부 설비에 적용한 개념설계에 대해 ABS와 LR의 기본 인증(AiP)을 받는다. ABS의 기본설계 검증(BDR)도 획득한다.

SENSE의 사업화도 추진한다. 가스엔텍과 첫 라이선싱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풀크럼 LNG와 글로벌 5개 지역의 FLNG 시장을 공략한다. 미국 제라아메리카스와는 하와이 연안 FSRU 사업의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가스운반선 기술 인증도 받는다. 한국

선급(KR)으로부터 대형 C타입 독립형 탱크의 구조 건전성 평가를 받고, 노르웨이 선급(DNV)에서는 초대형 가스·암모니아 운반선 저장탱크용 복합 지지구조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다.

한화오션은 조선·해양 기술을 데이터 센터로 확장한다. 자체 개발한 60MW급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실물 모델을 글로벌 시장에 처음 공개한다.

모듈화 설계를 적용해 설치 환경과 고객 요구에 따라 발전·전력 공급 방식과 서버 유형, 용량 등을 구성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자체 조선·해양 기술에 한화그룹의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운영·유지보수(O&M), 보안 역량을 결합해 FDC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에는 ABS로부터 60MW급 FDC 개념설계에 대한 기본인증도 획득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metro

정부-ADB, 개도국 AI 도입 등 협력 확대

구윤철 부총리, 칸다 ADB 총재 면담
포 에너지 인프라 사업방안 등 제시

한국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인공지능(AI) 도입에 힘을 보탠다. 양측은 개도국 AI 전환 수요에 한국의 기술 및 경험을 연계하는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ADB는 한국에 'AI 혁신개발센터'(CAID)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칸다 마사토 ADB 총재와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ADB에 AI 혁신개발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센터 설치를 계기로, 개도국의 AI 전환 수요에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연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한국이 대내외에 내건 이른바 '글로벌 AI 허브 이니셔티브(주도권)'에서도 ADB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칸다 총재도 국내 설립이 예정된 AI 혁신개발센터를 통해 양측 간 AI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화답했다.

앞서 지난 5월 구 부총리와 칸다 총리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

행총재회의를 계기로 마주한 바 있다. 당시 구 부총리는 AI 부문에서 ADB와 협력하면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윈윈(win-win) 개발'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또 국제연합(UN) 및 다자개발은행들의 AI 사무소를 한국에 집적화하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 계획을 소개했고, CAID의 국내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ADB와 체결했던 것.

이번 서울 면담에서 구 부총리는 AI 전환 뒷받침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ADB가 추진 중인 아시아 역내 에너지 사업에 한국의 발전·송배전 기술 및 운영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의 지원방안 관련해, 이번 한-중앙아시아 및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ADB 간 협력이 보다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며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중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핵심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산업 발전과 국내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늘려 나가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협조용자 등을 통해 한-중앙아 협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